



농수산물 수출 Zoom In 113호

I 실시간 소통 판매로 복숭아 싱가포르 수출길 열려

II 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을 위한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III 국산 배 대만 수출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113호 2023. 9. 15(금)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78.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
 - 신선 9.4억불(△5.3%), 가공 49.6(△0.2%), 수산물 19.8(△10.6%) -

- '23년 8월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7,873.4백만불
 - (신선) 김치(106.6, 7.6↑) 증가세, 과실류(213.8, △3.1), 닭고기(57.2, △6.9) 감소세, 채소류(197.5, △1.7) 보합세
 - (가공) 면류(761.2, 16.8↑), 음료(395.3, 7.3↑), 과자류(430.6, 3.2↑) 증가세, 낙농품(99.8, △15.8) 감소세
 - (수산물) 김(540.7, 16.0↑), 고등어(54.5, 27.9↑) 증가세, 참치(351.5, △22.6), 명태(36.9, △80.5) 감소세
- * 23년 8월(누계) 국가산업 전체 수출액은 12.4% 감소한 4,095.0억불

< '23년 8월(누계) 부류별 수출실적 >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22(연누계)		'22년 8월(A)		'23년 8월(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4,951.7	11,962.3	3,383.9	8,167.0	3,193.0	7,873.4	△5.6	△3.6
□ 농림축산식품	4,025.7	8,823.7	2,725.7	5,956.8	2,706.6	5,896.5	△0.7	△1.0
○ 신선	532.1	1,576.6	359.9	988.9	333.5	937.0	△7.3	△5.3
○ 가공	3,493.6	7,247.1	2,365.8	4,967.9	2,373.2	4,959.5	0.3	△0.2
□ 수산물	926.0	3,138.5	658.2	2,210.2	486.3	1,976.8	△26.1	△10.6

* 수출통계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수산물 수출 동향 관련 문의는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해외시장분석센터, 1644-6419)

- **CIS·몽골(309.4, 19.6%↑) 증가세, 미국(1,117.7, △3.1), EU·영국(473.9, △11.2) 감소폭 축소, 중국(1,376.6, △5.1), 일본(1,408.5, △4.7), 아세안(1,593.4, △4.5) 감소세**
 - (중국) 전년 상반기 기저효과 축소 및 내수회복 지연으로 감소세 지속
 - (일본) 파프리카, 과자류, 참치 등 주요 수출품목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미국) 현지 소비자 구매력 회복세로 가공식품 중심으로 감소폭 축소
 - (아세안) 닭고기, 음료 등 주요 수출품목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
 - (유럽) 제품 다양화와 판로 확대로 김치 중심 실적 회복, 감소폭 축소
 - (CIS) 서방과의 단절로 인한 아시아 교역 확대로 수출 증가세 지속

<'23년 8월(누계) 주요국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

국가	중화권	일본	미국	ASEAN			EU (영국포함)	CIS (몽골포함)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니				
'22(연누계)	3,129.3	2,160.7	1,632.6	2,431.8	879.5	443.6	318.3	755.5	396.5	241.7
'228월(A)	2,065.2	1,477.4	1,153.6	1,669.3	590.2	321.8	219.3	533.9	258.7	148.3
'238월(B)	1,960.6	1,408.5	1,117.7	1,593.4	549.2	316.3	205.9	473.9	309.4	182.7
증감률(B/A)	△5.1	△4.7	△3.1	△4.5	△6.9	△1.7	△6.1	△11.2	19.6	23.2

농진청 이슈



실시간 소통 판매로 복숭아 싱가포르 수출길 열려

농촌진흥청은 수확한 지 3일 만에 싱가포르 현지 소비자에게 복숭아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방식을 시범 도입해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싱가포르 현지 구매자(바이어)와 싱가포르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 방송팀, 국내 복숭아 생산 전문가(마이스터)를 연계하는 '선주문 후 수출' 방식을 기획해 방송 시작 30분 만에 130상자를 완판했다. 싱가포르 소비자들은 현지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복숭아(수확 후 5~7일)보다 최대 나흘이나 일찍 수확한 신선한 우리나라 복숭아를 맛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나라 복숭아 품질에 만족한 현지 소비자들은 추후 60박스를 추가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에 수출한 복숭아는 상자당(1.8kg) 약 7만 5,000원으로 일본산(최대 약 17만 원)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고, 부드러운 식감과 높은 당도를 유지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방송 진행자가 실시간으로 복숭아를 직접 맛보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복숭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완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실시간 소통 판매에 의한 수출방식은 미리 주문받은 우리 농산물을 정해진 기간에 수출함으로써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현지 구매자 입장에서도 선 주문 물량만큼만 수입해 재고 위험을 덜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싱가포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드럽고 당도가 높은 복숭아는 운송과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유통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데, 이러한 현지 실정을 파악해 우리나라 복숭아를 판매한 점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한편, 복숭아는 수확기가 짧고, 내수시장 홍수 출하가 빈번해 수출 필요성이 큰 품목이다. 현재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으로 연간 370만 달러(2022년 기준) 정도 수출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현지 구매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비용을 낮추는 등 점차 수익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농식품 수출정보 통합안내센터 운영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수출정보 통합안내센터'를 9월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은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고 까다로워 수출 주체들이 쉽게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관련 정보들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농진청은 수출농산물 국내생산에서 해외판매까지 필요한 수출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수출농가(업체)의 애로해결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주로 수출절차, 농약안전성, 식품위생, 생산기술, 해외시장 정보 5개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먼저 수출절차 등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통합안내센터 담당자가 상담을 진행하고, 농약안전성·식품위생·생산기술 등 전문기술 정보는 분야별 담당자와 매칭한다. 그리고 5개 분야 이외의 수출정보에 관해서는 관련기관 담당자와 연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5대분야 수출정보 통합안내 서비스를 통해 잠재력을 가진 여러 수출 주체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식물검역 이슈



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을 위한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추진해 최근 타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 파프리카는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으며,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별로 포장 및 봉인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항공화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2%의 표본검사가 가능해졌으며, 포장도 파렛트 단위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요건을 8월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선 행정지시로 변경된 검역요건에 따라 수출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시일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산 배 대만 수출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3년산 국산 배의 대만 수출을 위해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수출 선과장 및 과수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산 사과, 배를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데 양국 검역관이 번갈아가면서 실시하고 있다. 대만 측은 이번 현지조사에 올해 신규로 등록한 선과장과 과수원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신규 선과장 및 과수원의 경우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수출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검역본부는 현지조사 시기를 평소보다 앞당겨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대만 측에 송부하여 신규 선과장 뿐만 아니라 기존 선과장들의 대만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